

# 진짜로 가족을 위한다면 그냥 탁 뇌주는 거예요

21면에서 계속

그러면서 “정히 그렇다면 내가 앞장서서 따라가 주겠노라.” 이렇게 허서서 중국으로 신고 가는데 말이예요. 아주 엄청났거든요. 배에 신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면서 이쪽에서도 수백 명의 군사들을 따르게 하고 그쪽에서도 수백 명의 군사들이 강가 모래밭에 나와서 기다리게 하고 말입니다. 이 서훈보 스님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리게 하고 수백 명이 밤새도록 거기서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게 만들었거든요. 그냥.

그걸 끄르는 동안에는 천자가 지켜보며 앉아 있었으니, 밑에서 끄르는 사람이 얼마나 진이 빠졌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렸지요. 글썄, 그걸 몇 수십 번씩 썼는데 ‘이게 뭐냐?’ 하고 거기만 노리고 있으니 말이예요. 아, 그런데 필요성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예요. 하하하! 이것은 조선에서 제일 처음 연구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니, 이게 찌그러졌어도 보물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데다가 또 그 샷갠이나 호피는 그게 중국 보물이니 여기 보물이냐는 겁니다. 이야기를 지어 가지곤 그렇게 만든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도 보물을 만든 거라고요. 그래 놓고선 그거 끄르는 데도 그냥 다칠세라 하고 살살 끌어서 요렇게 해 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의 진을, 정신을 다 뺏 거죠. 그냥. 보는 사람도 땀을 뻘뻘 흘리게 만들어 놓고... 그러곤 풀어 놓으니까 아주 그냥 달고 달아서 새끼만 게 톱같이 된 게 딱 나오니까 “아, 이런 어떻게 해서 보물이 되냐?” 하니까 그래도 당신네들이 간수 못한 거를 우리 조선에서 간수했다 이거예요. 공자가 삼천 제자를 가르칠 때 썼던 그 방식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 거를,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보존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찌 이게 보물이 안 되겠느냐 하니까 그때 천자가 놀란 거예요.

수일을 두고 그걸 끄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시간제로 해서 오늘 하나 풀면 내일 풀고 이러니까 진을 그냥 씩씩씩 거지요. 그 스님 여간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새끼가 앓고 비슬비슬한 것은 뭐냐 하니까 “태공이 꿈은 낚시 넣을 때 쓰던 샷갠인데 우리가 보존해야 되느냐?” 하고 큰소리 쳤거든요. 그냥! 그러니 뭐, 거기서 가가 딱 죽어서, 여복하면 천자가 자기네 정승들한테 그냥 막 아탄치고 그랬죠. 그렇게 기가 팍 죽어 가지고 우리나라로 재산을 많이 배로 실어서 내보냈

잖아요. 그래서 나라 살리고 없는 사람 살렸지요. 자기 똥으로 한 배 준 거는 어려운 사람 다 나눠 줘서 방생하고요. 그러니 이것이 진짜 방생이예요. 방생이라는 건 물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마음, 마음으로 주는 방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질만 알지 말고, 되는 것만 알지 마세요. 전자에 업보로 인해서 업식으로 멍쳐진 인과, 유전, 그 모든 것이 지금 현실에 솟출 풀려서 여러분을 괴롭히는데 그 마음 하나 방생을 한다면, 방생을 받는다면 정말이지 그 업이 다 녹아져서 세세생생에 걸림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터진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그저 와서 스님네가 “아이고, 잘해 줄 테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요런 것만 바라시면 안 됩니다. 말을 서로 주고받지 않았어도 부처님은 다 잘 아시거든요. ‘겉으로 잘 입고 속으로는 없구나.’ 이런 것도 알고 ‘겉으로 못 입어도 속이 단단하구나.’ 이런 것도 알

아요. 그리고 잘사는 거 겁탈 내지 않아요. 한 철 살림 살아가는 거 왜 겁탈 내요? 우리 중들이 왜 겁탈을 내

요? 안 내요! 그까져 거 하상 뭐라고요. 울지 않고 뼈저리지 않게 괴로움 없이 사는 것만 해도 내가 보기에는 좋은데 어째서 그걸 뺏고 울러요? 안 그럴까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보지나 않았을 것을...’ 하고 내가 온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 그만큼 우리 지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아주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러지만, 살기 좋은 때라고 그러지만 지금 얼마나 밝고 얼마나 민첩해야 살 수 있는가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그냥 목탁이나 치고 구멍가게처럼 벌이해서 먹는 데가 절이 아니예요. 조선 시대 때에 쫓겨서 산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다시 계발을 해서 바깥으로 자주 나오기도 하고 또 산에서도 대중을 거느리고 예전과는 달리 하고 가고들 있죠. 그런데 이 공부해서 이끌어 가는 거하고는 다르겠지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계발해야 합니다. 마음 빼놓고는 없어요. 마음 빼놓고 무슨 계발이 됩니까? 나, 나부터 계발해야 남을 계발하게 하고 세상을 계발하지 내가 나를 계발 못하는데 어떻게 계발하게 해 줍니까?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해도 마음 한생각이러면 나무 이파리 하나하나를 군사로 만들 수 있어요. 방편으로 얘기하러니까 그렇게밖엔 얘길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나무 이파리라는 것도 방편입니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투입을 하려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수호로다가 따지겠습니까. 모래알 같다고 한 것도 방편입니다. 얼마나 많으면 없다 그랬고 얼마나 없으면 많다 그랬겠습니까?

그러니 보이는 데서 물질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도 그렇게 뭐, 수억만 년이 지나도 싸움은 줄어들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마음의 도리로서 사는 데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하나 만들었다 하더라도 운전은 기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고장이 나면 어디가 고장이 났다는 거 알지요. 내가 어딜 가겠다 하면 벌써 그냥 운전이 돼서 간단 말입니다. 그

러셨죠. “재산을 다 버리고 오나라.” 그랬더니 다 배로 실어다가 강물에 버렸거든요. 강물에 버리고 오니까 “네 권속들은 왜 죄 끼고 왔느냐.” “권속은 하나도 없습디다. 혼자 왔습디다.” “네 머릿속에 권속이 다 들어 있는데 어찌 권속을 다 제치고 왔다고 하느냐. 가서 다 떼고 오나라.” 그래서 권속을 다 버리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제자가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배워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올바르게 알게 되고 부처님의 속을 꿰뚫어보게 되고 역대의 조사들의 그 속을 꿰뚫어 알고 사생의, 발레 하나의 마음도 꿰뚫어볼 수 있어서 우리가 견져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 속에서도 지금 수십억 마리가 들끓는데 어떻게 시럽니까?

올해는 우리가 “돌로 안 보는 도리가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돌로 안 보는 도리를 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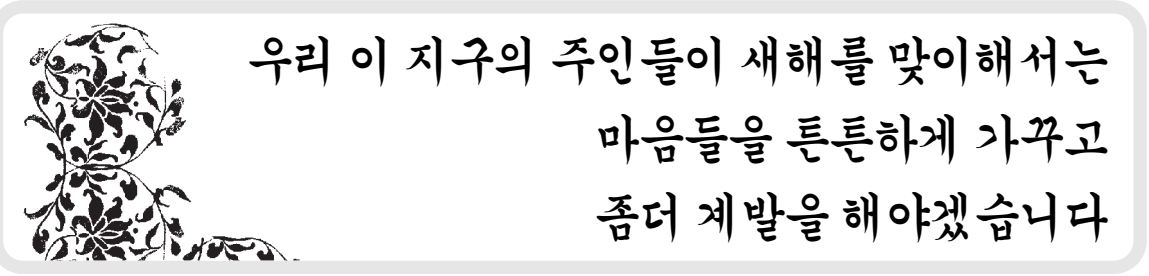
실질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 그랬죠? 모두가 한 철의 살림살이니까 식구에 게도 착을 두지 말자.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되, 너 나 할 거 없이 전부 사랑을 베풀고 그러되 작은 두지 말자. 죽어도 같이 갈 수도 없고 또 아파도 대신 아파 줄 수도 없고 대신 자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아예 낚서, 울지 않고 돌아서서 뼈저린 눈물 안 흘리게 우리 탁 뇌 주자. 그냥 주인공이 끌고 다녀야 된다. 진짜로 믿고, 진짜로 자식을 위하고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고 형제를 위하고 부모를 위한다면 탁 놓는 거예요. 놓지 않으면 그것은 고생거립니다. 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로는 잘해 주고 사랑해 주고 다 하면서도 작은 두지 마세요. 옆에서 그냥,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무심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세요. 그리고 말도 좋게 해 주고 다 이렇게, 열 배 천 배 더 해 주되 작은 두지 말고 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따 죽는다고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리만큼 말입니다. 그래야 모두 고에서 벗어나니까.

벌써 아들이라는 가설 부모라는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 주인공에 그렇게 딱 붙을 거 놓으면 다른 데도 다 붙어 들어옵니다.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바깥으로 돌아요? 절에 가면 인등을 단다 뭘 한다 그러는데 백 일만 이 세상이 움죽거리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겁니다. 마음의 불을 켜세요. 우리가 마음의 불을 켜면 어느 거든 밝게, 나도 밝고 남도 밝고 다 밝게 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속의 배 속에 들어가서요, 그냥 막 무시고 짓두들기고 그렇게 부수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걸 제재하느라고 또 배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막거든요. 그력하는 거 모르시죠? 허허... 우리가 간단하고 조끄마한 물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본다면 공이예요, 공(空)! 허허... 작게 보면 작은 거고 크게 보면 큰 거예요. 전체 우주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난 이제 말하기 싫은데요.

그래서 병이든가 가난이든가 우환이든가 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저 모두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지금 맥도 다리를 못 쓰고 이러는데, 그러면 ‘아이고,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해야 더 빠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죠. 그런데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요. 죽거나 말거나 아예 버려요. 그냥 ‘네가 끌고 다니는 건 죽어든지 살리든지 내가 할 거니까 너 알아서 해라.’ 하고 버리러니까요! 그렇게 버리면 연계되고 버리지 않으면 죽어요. 뭐든지 그렇죠. 그래서 한 철에 한 백지장 사이를 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은산철벽을 뚫고 세상을 뛰 어찌니 저찌니 하느냐는 얘기도. 그러니 알아서 해요.

그럼 인제 이렇게 길을 일러 드렸으니까 열심히 실천해 보세요. 이거처럼 좋은 길은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꼭 한 번쯤은 이 백지장을 뚫어야 된다는 결론이요. 그래야 또다시 거듭 거듭 태어나서 거듭 거듭 모습을 바꿔 가면서 그 고에서 허락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도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도 다 제도 가 되니까, 자기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제도 가 되느냐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위 법문은 1989년 1월 8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 마음 선원 홈페이지 (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광력이나 자력이나 전력이 얼마나 풍부하고 그 에너지가 얼마나 풍부하기에, 그저 어디든 심리 안팎으로 닿기만 하면 그냥 탁탁 부서져 버려요. 이만큼 전력이 있는데도,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도 우리 지구는 바깥에서 전력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쇠퇴해져거든요. 우리 사람이 어린애로 태어나서 젊었을 때에도 그런데, 점점 점점 사람이 인종이 많아지고 점점 점점 쓰는 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조금 쇠퇴해졌다고도 봐요. 지금, 겨울에 추운 겨울 봐도 아시겠지요? 그전엔 오줌을 뉘고 그냥 막 얼어서 올라왔죠. 그랬는데 지금은 저 만큼 같은 데서 오줌을 누어도 얼어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쇠퇴했다는 얘기도. 그걸 봐요.

그러니 우리 이 지구의 주인들이 새해를 맞이해서는 마음들을 튼튼하게 가꾸고 좀더 계발을 해야겠습니다. 나는 물질을 버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버리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어폐 있게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부처님께서도 그

현지사 소개 그 열두번째 주제 - 현지사에서 전하는 말씀 -

## 영산불교의 정부당국에 대한 호소 -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의 매몰처분을 개탄 매몰은 더 큰 질병의 원인이 될수도.... 소각처분이 최선의 방법

### 생명 단절의 안타까운 현실

지금 현재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으로 농가의 경제적 타격과 국가적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는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하더라도 유히를 주장하는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가축 또한 인간과 같은 중생이기에 구제역에 걸린 수많은 생명들의 단절과 남아있는 생명들에 대한 위협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 가축들도 영혼체가 들어가는 생명체

영혼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영혼체의 존재와 그 영혼체의 유히를 여실히 보고 있는 대수행자로서는 가축들의 죽음은 매우 슬픈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사육하는 축생들의 대다수는 사람과 같은 생명체로서 인간도 언젠가 죄를 짓게 되면 그와 같은 몸을 받게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개나 고양이, 소와 돼지 등을 직접 키워본 분들이라면 그들이 비록 지적으로 고등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인간과 동일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몸 안에는 인간의 영혼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 모든 것은 업과 인연에 의한 일들.

모든 사람들이 육류 섭취를 금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축생으로 태어난 것 또한 거대한 업과 인연의

수레의 한 부분이기때문에 작금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는 또 다른 미래의 인(因)이기에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확산을 막아야 한다

구제역 등 각종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인한 더 이상의 살처분을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한 매몰 및 소각 방법에 있어 경제적 문제와 절차상의 편의에 의해 매몰이 주로 선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적 효용만을 중요시 한다면 머지않아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매몰은 수질오염 뿐만 아니라 소멸되지 않은 바이러스에 의한 이차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우려되는 일은 소멸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몇 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악성 바이러스로 출현하는 것입니다.

### ‘매몰’이 아닌 ‘소각’을 해야 한다!!

삼매에서 확인한 부처님 말씀입니다. ‘매몰이 아닌 소각을 해야 한다.’ 미래란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매몰처분이 계속된다면 보다 더한 악성 바이러스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에 부처님께서 거듭 충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덧붙여, 사람 역시 중한 병에 걸려 사망한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매장보다는 화장에 의한 장례 절차가 좋습니다. 모든 일이 인연 따라 정해진 일이지만 이 진심어린 충고와 정부 당국자에게 전해지기를 진심담아 발원합니다.

붓다는 우주와 법계의 주(主)이시며 우주 이법과 하나된 창조주적 초월적 인격자이시다. 지존이신 붓다의 창조주적 위신력이라면 국가적인 환란(전쟁·기근·질병)까지도 극복 못할 리 없다. 그에 상응하여 우리 모두가 삼계지존을 공경하고 큰 선근공덕을 짓는다면 숙명적인 대환란도 불력을 통해 극복 못할 리 없다. **여기 영산불교 현지사가 있다**